



작 : 아돌 후가드 | 연출 : 호민 | 출연 : 구민주, 박규남, 호민

메카, 그해 따뜻한 겨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멈춰버린 꿈은 어디쯤 있을까요?

2012. 11. 30 (금) ~ 12. 22 (토) 미리내소극장 평일 오후 8시 / 토, 일, 선거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찌 지내셨는지요.

11월

이외수

세상은 저물어
길을 지운다

나무들 한 겹씩
마음 비우고
초연히 겨울로 떠나는 모습
독약 같은 사랑도
문을 닫는다

인간사 모두가 고해이거늘
바람은 어디로 가자고
내 등을 떠미는가

상처 깊은 눈물도
은혜로운데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이름들
서쪽 하늘에 걸려
젖은 별빛으로
흔들리는 11월

그동안 미리내는 많은 일이 생겨나고 스러져 갔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보니

걱정. 보다 한순간 정지. 또한,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더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알게 되는 것이 삶인가 봅니다...

‘세상이 난세일수록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는 말이
실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에 ‘사람’ 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느낌’ 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해가 스러지는 즈음에

시린 가슴팍 가느다란 불빛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홀로여서 외롭다 느끼신다면 우리 함께 손잡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배우 **구민주**

구민주 | **미스헬렌** 役 **미리내**소극장 대표 | 제16회 부산역극제 최우수여자연기상 | 제19회 부산연극제 우수연기상
〈영순아,어디가니?〉 〈과부들의 축제〉 〈주와민〉 〈상상하는 여자〉 〈양파〉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남자〉 〈러브러브 베베〉 등

1974년 가을, 남아프리카 뉴 베데스다
광대한 사막 카루의 작은 마을 뉴 베데스다에 사는 헬렌은 괴짜 할머니다.

그녀의 마당엔 시멘트로 만든 괴상한 조각상들
(눈 대신 헤드라이트가 달린 올빼미, 수십명의 동방박사, 수탉머리가 달린 남자 등)이 서있고,
집안 역시 헬렌이 만든 특이한 소품과 촛대들로 가득하다.

**헬렌은 그렇게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메카'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를 알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메카'를 밝혀주던 빛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는 암흑과 맞닥뜨린 헬렌은 정말 정신이 나간 할머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오랜 친구이자 마을의 목사인 마리우스는 그녀에게 요양시설로 들어갈 것을 권유한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메카'를 잃을 위기에 몰린 헬렌은
자기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멀리 대도시에 살고 있는
젊고 진보적인 인권변호사인 영혼의 친구 존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cast



구민주 (미스헬렌 役)

독한 고독에 촛불을 끄는 것조차 두려웠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라 여기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내버려두었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홀로여서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느끼시나요.... (From. 구민주)



호민 (마리우스 빌레벨트 役)

미스 헬렌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교회 목사
자신의 방식으로 헬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다.
점점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지 모른채...

미리내와 아센의 믿고 보는 공연 !! (From. 호민)



박규남 (존 터투로 役)

인권변호사

헬렌과는 우연한 만남으로 정신적 우정을 나누고 있는 영혼의 친구
헬렌의 편지를 받고 10시간이 넘게 차로 달려오는데.. 자신만이
헬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오만이 갈등을 부르게 된다.

가짜도 오래 보면 진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가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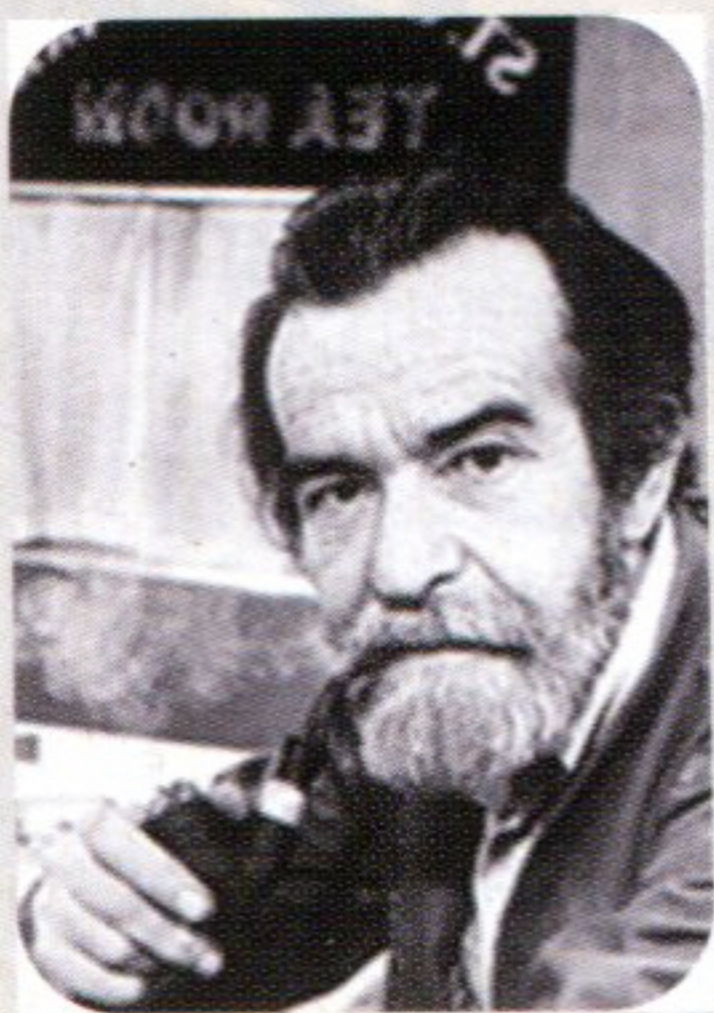
진짜 꿈을 희망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From. 박규남)



절대로 촛불을 함부로 켜지 말고, 불어 끌 때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할 것!

“암흑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잘못이었어. 불을 밝히는 법을,
그리고 그 의미를 나에게 가르쳤듯이,
이제는 촛불을 끄는 법을,
그리고 그 의미를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만 해”

writer



“남아프리카의 양심” 아들 후가드

〈아일랜드〉로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 배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엄격한 검에도 굴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인종차별과 사회병폐 문제를 인간 보편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통해 “남아프리카의 양심”으로 불리우는 작가

토니상, 뉴욕 비평가 협회상, 오비상, Outer Critics Circle Award, Lucille Lortel Awards, Drama Desk Awards, Evening Standard Award 수상에 빛나는 세계적인 명성의 작가

〈핏줄 The Blood Knot〉(1963), 〈만남과 헤어짐 Hello and Goodbye〉(1966), 보즈먼과 리나 Boesman and Lena〉(1969), 〈아일랜드 The Island〉(1972), 어느 부도덕한 행위로 체포된 여인의 증언 Statements After an Arrest Under the Immorality Act〉(1972), 〈오레스테스 Orestes〉(1978), 〈해럴드 아무 개 선생과 학생들 Master Harold... & the Boys〉(1982), 〈메카로 가는 길 The road to Mecca〉(1984) 등 다수

staff

이번 정기공연으로 잠정 결정된 작품의 계약만을 남겨놓고 있던 어느 새벽, 전화기 너머로 '〈메카로 가는길〉을 해야겠다'는 구민주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머리가 백지장처럼 되었었다. 매번 정기공연 때마다 물망에 올랐지만 여러 이유로 미뤄왔던 공연, 극단을 창단 했던 2000년에 올렸던 공연을 마지막 공연의 의미가 있는 이번 공연에 하게 된 것!

며칠 내내 대본을 읽었지만 좀처럼 다가오지 않던 이 작품이 어느 날 가슴속에 들어왔다. 잠시 지켜본 연습장면에선 왈칵 눈물이 흘렀고, 한땀 한땀 만들어지는 무대를 보며 활짝 웃기도 했다. 마무리 연습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린다. 이제 따듯한 겨울을 만날 차례가 왔다. let's go meca! 마지막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닿아 있을 것이다. 더욱 행복한 시작...

- 기획 : 최동민

연출 : 호민
기획 : 최동민
출연 : 구민주, 박규남, 호민
예술감독 : 김우진
무대 : 김한진
조명 : 호준철, 정형철
음향 : 엄태현, 최미리
진행 : 최유리
그래피티 : 민주홍
함께한 사람들 : 구보경, 반지수, 최현영, 한아름, 구보경



“이처럼 행복해하는 당신은 오늘 처음 보았소
당신 촛불들을 모두 밝혀놓은 것보다도
당신이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소!”

